



정부, 5조 9,000억 원 경기회복 추가 지원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세계경제 부진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를 보완하고 민간부분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5조 9,000억 원에 달하는 「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」을 2012년 9월 10일 발표함.

- 정부는 2012년 6월 28일 위기의 장기화·상시화 상황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8조 5,000억 원에 달하는 「1차 재정정보강대책」을 발표한 바 있음.
- 이번 대책을 통하여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신속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경기보완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, 서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.

■ 주택거래·소비·투자·지방경기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구체적인 재정지원 강화대책이 마련됨.

-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말까지 취득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(7,000억 원)함.
-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인하(2조 원)하여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,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(1,000억 원)함.
-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SOC에 대한 민간 선투자(1,000억 원) 및 공기업투자(1,000억 원)를 확대하고, 중소·벤처기업(1,000억 원)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.
-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정부기관 이전공사를 촉진(4,000억 원¹⁾)하고, 자치단체 예산 집행률을 제고(2조 원)함.
-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등 생활안정 대책을 강화(8,000억 원)함.

(경기회복 위해 5.9조 추가 재정지원 대책 발표, 기재부, 9/10)

1) 집행률 제고.